

석사학위논문

선택중심교육과정, 학교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지 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 은 석

2003년 8월

선택중심교육과정, 학교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은석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김 인 차 
심사위원 박 순 방 
심사위원 전 지 현 

<국문 초록>

선택중심교육과정, 학교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 은 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전 지 현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있어 소수 학생들이 선택한 과정 특히, 예능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하여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음악과 교육과정 및 음악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관련된 국내의 저서,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의 자료를 기초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분석 및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8개교)의 2003년도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설문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공급자는 제7차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힘써야 한다. 지금의 제7차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진통은 더욱 엄청나리라 생각된다. 물론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이행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전의 문·이과식을 그대로 교수하면서 약간의 과목 선택을 가미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을 위한 실행 방안이 되기에는 매우 실망을 안겨

주는 처방이 될 것이며 현재의 학생들의 이반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할 때 학생들의 희망과 요구, 소질과 적성, 진로와 능력에 바탕한 제7차 교육과정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위해서는 학교 간 협력에 의한 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특성화라는 것은 개별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것으로서 대학의 전문성 높은 교수에 의해 강좌가 개설되듯이, 교사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며 제시되는 환경 속에서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의 특수한 필요에 의해 학교 나름의 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에 주어진 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이나 코스, 프로그램을 개발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적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에 기초가 된다.

셋째, 개별 학교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예능 과정 특성화에 있어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에 의한 권역별 특성화 방안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예능 과정의 개설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예능 과정의 특성화가 각 학교마다 모두 개설될 수는 없다. 그것은 예능 과정의 특성상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뒤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더불어 특정 지역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몇 개의 학교를 선택하여 음악, 미술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 필요한 과목들을 다른 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해 주며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들 가운데 예능과정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예능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 지원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역별 특성화 체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1.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이해	3
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배경과 의미	3
나.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특징	11
2.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13
가.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의 전제	14
1) 소교과 집중 학습	14
2) 교육적 선택의 내실화	15
나.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기본 방안	17
1) 집중과정	17
III. 학교 간 협력에 의한 편성·운영 방안	23
1. 학교 간 협력에 의한 편성·운영 방안의 전제	24
가. 학교 간 특성화 편성·운영 방안	25
2. 학교 간 통합 편성·운영 방안	31
가. “학교군(권역)” 개념의 활용	31
IV.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예능과정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의 예	
1.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분석 및 비교	37
가. 일반 현황	37
나. 단위학교의 집중과정 개설 현황	38
2. 예능과정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 설문 결과	41

가. 예능과정 개설	42
나. 예능과정 운영의 문제점	43
다. 예능과정 운영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	45
3.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	47
가. 학교실태	48
나. 학교간 예능과정 편성·운영	51
V. 요약 및 결론	55
1. 요약	55
2. 결론	57
참고문헌	59
설문지	61



ABSTRACT

<표 차례>

<표 1> 교육과정의 선택주체의 변화	6
<표 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제	12
<표 3> 제 7차 교육과정과 이전 과정 비교	18
<표 4> 집중교과와 구성교과목	21
<표 5> 개별학교가 택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예	30
<표 6> 학생수 및 학급현황	37
<표 7> 집중과정개설현황	38

<표 8> 학기당 이수과목	39
<표 9> 집중과정 선택인원	40
<표 10> 선택주체별 이수단위현황	41
<표 1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41
<표 12> 교직원현황	48
<표 13> 시설현황	49
<표 14> 학생현황	49
<표 15> 과목별 교사	50
<표 16> 인문사회 과정 비교	52
<표 17> 인문사회를 제외한 과정 비교	53

<그림 차례>

<그림 1> 학생선택유형	8
<그림 2> 교과 영역	19
<그림 3>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학교내/ 학교간 운영방안	23
<그림 4> 집중과정이 특성화된 학교의 이수 모형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식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변화, 사회의 끊임 없는 변화 요구 등은 교육을 신속하고 다양한 변화의 길로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전도되어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교육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획일화된 교육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흥미, 능력, 적성을 중요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하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 사항중 하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흥미, 능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폭넓은 다 교과 피상학습을 피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생 집단별로 특수한 요구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며 효과적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특히,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지원자가 적은 과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학습권 상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예체능 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교육과정에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현재 대학의 예체능계 진학 학생의 94%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중심교육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예체능 과정 선택은 이루어져야 한다.¹⁾

그러나 단위학교가 예체능 과정을 개설하기에는 교원 수급, 시설 및 설비의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 또한 같은 전공 내에서도 분야별로 소수 인원이 되

1) 김재춘 외(2001),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방안 연구.

어, 예를 들면 음악 전공이 기악, 성악, 피아노등으로 세분화되므로 교육과정 운영상 인적·물적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학교에 따라서 전공별 희망 인원이 학급 구성이 가능한 정도가 되고 전공 실기 지도를 위한 교원 수급이 가능하다면 단위학교에서 예체능과정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소수 인원이 희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위학교가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보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시처럼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배경 속에서 음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매해 소수 집단으로 나타나고 그때마다 학교의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선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에 있어서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정, 특히 예체능 과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감안하고 현재의 학교 요건을 고려하여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 및 음악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관련된 국내의 저서,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의 자료를 기초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분석 및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8개교)의 2003년도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분석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은 ‘불확실한 미래의 학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면적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일반교육’이 더욱 요청된다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에 동의하며 ‘일반교육’의 교과로서 예체능과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도 검토해야하나 여기에서는 전문화과정으로의 예체능 교육과정으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이해

가.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배경과 의미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편성방법을 채택하여 정부의 통제가 편리하도록 국가가 결정한 필수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다. 국가가 공통필수 교과목을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해진 몇 개의 과정을 제시하고 제시된 과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가 사전에 결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가 과목을 선택하였다. 그러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중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하여 국가수준에서는 공통필수 과목만 결정하였고, 과정별 필수과목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였으며, 과정별 선택과목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아직까지 학생들 자신의 결정에 의한 선택교과 학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목 선택권이 허용된 것으로 보였지만 과정별 필수과목 및 과정별 선택과목은 각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어떤 과목의 교사들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하였기 때문에 학생중심의 선택교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극복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학교 교육과정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교육과정이 너무 많은 것을 규정해 왔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이 자라날 틈이 부족했다는 데서 기인한다. 국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기로서 고등학교 교육이다 보니 학교 교육과정이 없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로 볼 때 이미 성인기에 가까운 분별력과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지나치게 똑같이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계 고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이다. 최근 들어 교실 붕괴를 운위하는 현

실도 교육 과정적으로 보면 학습, 교사, 학교에 대한 경시의 사회적 풍조뿐만 아니라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학습 부담의 경감 등도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짜놓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대한 학생의 이반 현상이나 이전에 학생들이 지녔던 학습, 대학 입시, 학교, 교사에 대한 관념들이 교실의 학생들을 묶어 두었던 것을 그런 억제 세력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교사와 학생이 맞대면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성격은 학생들을 붙들어 두기에 매우 약한 것이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사가 있기 때문에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의 실정에 비추어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불러오는 면이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매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방향이 요구된다.

둘째, 개별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와 스스로 교육과정 개선할 필요에 바탕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것은 국가 교육과정과 국가 수준 각종 시험에 의존하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꾸려온 오랜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한가람고등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²⁾ 등 오직 극소수 학교들만이 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현재 204단위를 210단위로 중배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과목 신설 보다 기존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목의 신설 및 통합 운영과 과목당 단위수의 조정에 있어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제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교과를 모두 두루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다.

고등학생들은 현재 13개 교과 영역에서 3년 동안 적어도 30개가 넘는 과목들을 배우고 있다. 과목들은 여러 학기에 걸쳐 분산되어 개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다. 학생들이 이미 잘 못하는 교과 영역들도 모두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학생은 누구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두루 잘 해야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대학진학에도 유리하게 되어 있다. 고교 과정은 말그대로 “죽었다 썩치고 공부하는 시기”이다. 여기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

2) 열린교육학회(2000), 제8집 제1호 2000,5 열린교육연구.

이 무엇일까? 정신적 신체적 활력, 기, 개성, 창의성, 진취성, 소질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 적성, 개성을 살리고 진로를 감안해 집중 선택하여 공부할 기회가 적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연령대의 이들이 개성, 창의성, 진취성, 활력을 덜 죽이고,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학교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도 그들의 한정된 시간과 정력을 소질과 진로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과정” 규정 방식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현재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고교 과정 204단위 전체를 ‘과정’으로 정해 주고 있으며, 이를 다시 과목별로 일일이 지정해 주는 데서 심각한 경직성이 야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중도 진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고교 3년간 204단위를 모두 한꺼번에 엮어서 과정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직성은 더욱 심각해진다. 학생들은 문·이과식 외에는 실질적인 선택이 어렵다. 배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은 과정내의 과목 선택권만 허용되고 있어 과정과 진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직업 세계와 학문 세계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적응을 위한 기반으로서 과정을 넘나드는 과목 선택권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새 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수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분류하고 학생들을 배치하는 관례에 젖어 있다. 직업 세계의 변화, 대학의 학부제 도입, 무학과 입학 후 학과 결정, 복수 전공 장려, 문·이과 교차 지원 허용, 표준 점수제 도입 채택, 수능 총점보다 특정 과목이나 영역의 특출한 학생을 우선하는 등 대학 변화를 감안한다면 경직된 문·이과 운영은 학생들의 진로 변경에 장애가 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된 단일 과정이나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 전문화된 과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일반고내 예체능 과정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

특목고의 예체능 고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으나 예체능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계에서 자신의 소질을 살리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997학년도 예체능계 대학 입학 정원 86,930명 중 예체능 고교를 통해서만 그 6.1%에 해당되는 매년 5,279명이 배출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계 출신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초에 희망원을 받아 학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음악 미술,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

교를 지구별로 1·3개 지정 육성해 이들을 집중 배정한다. 교육청은 예체능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에는 해당 교과 교사/강사를 추가 배정하고, 시설 설비의 추가적 설치를 재정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개별 학교 단위로 교육과정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는 개별 학교로서는 교사 수, 교실 수 등의 제한으로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고립된 단위 학교 중심의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한되고 있다. 학교 간 협조를 통해 상치 교과 교사를 해소하거나 통합 교과 수업을 위해 세부 전공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즉, 교육청 등의 지도 권고를 통해 교사와 시설 활용 및 과정 개설에 있어서 인접 학교 간 상호 협조, 공동 활용,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상의 것들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또한 선택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언급되는 과정별 선택과목과는 그 의미가 많이 변하게 된다. <표1>

<표 1> 교육과정의 선택주체의 변화

	5차교육과정		6차교육과정			7차교육과정				
편제표상의 보통교과 구분방식	공통필 수(84)	과정별 선택(10 4)	공통필 수(70)	과정별 필수과 목(106)	과정별 선택과 목(12)	국민공통 기본교과 (56)	선택중심교육과정[일반 선택(24)과 심화선택과목(112)]			
선택의 주체	교육부	교육부(72-78) 학교(26 -32)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육부	교육청 28단위 이상	학교28 단위이 상	학생50 %(68) 이하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				
일차적인 선택의 주체	교육부		교육청			학교/생활				

선택 중심교육과정에서 ‘선택’이라는 말은 ‘의사결정’이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물음은 결국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다. 따라서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교육과정관련 의사 결정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다. 교육과정의 의사결정 주체, 즉 교과목 선택의 주체는 크게 국가, 교육청, 학교, 학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관련 의사결정을 국가가 전적으로 행사하는 교육과정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교육청, 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의 교육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고등학교에 새로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오가 관련하여 수많은 오해가 발생하였다. 그 오해의 근저에는 ‘학생선택’이라는 말의 해석이 놓여 있다. 학생선택이라는 말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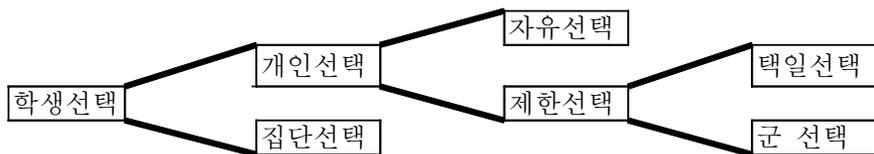
첫째, 학생선택에는 학생 개개인이 선택하느냐, 아니면 학생들이 집단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선택’과 ‘집단선택’이 존재한다. 학생 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는 달리 학생들이 학급을 기본 단위로 하여 원하는 과목을 집단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러한 집단 선택의 경우,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대신에 학급 진답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교육부, 교육청 또는 학교가 특정 교과목을 임의적으로 개설하는 것 보다 비록 집단으로라도 학생의 의견을 조사하여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는 집단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학생중심 교육의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집단선택’도 학생선택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개인선택’ 방식에서 선택의 폭과 관련하여 ‘자유 선택’과 ‘제한 선택’이 존재한다. 자유선택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유형을 말하며, 제한 선택은 일정한 조건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유형을 일컫는다. 어떠한 규제도 없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자유 선택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교육의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오랫동안 제공해온 소위 선진

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도 완전한 의미의 자유선택은 존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실제로 대학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선택은 대부분의 경우 제한 선택 유형이다.

셋째, 일정한 조건 내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한선택’ 방식은 단일 과목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과목 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택일 선택’과 ‘군 선택’으로 나뉠 수 있다. 택일 선택은 제공된 몇몇 과목 중엔 학생이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군 선택은 몇 개의 과목으로 형성된 과목 군중에서 하나의 군을 선택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과목 군 선택은 학생들이 종종 원하지 않는 과목이 들어있는 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는 하나, 같은 군을 선택한 학생들을 동일한 반에 편성함으로써 번거로운 이동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제한 선택 방식에 속하는 택일 선택이나 군 선택 모두 제한된 조건 내에서의 선택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생의 흥미나 관심 등과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중심교육의 실현에 진일보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현재 학교 여건에 가장 적합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선택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학생 선택의 유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학생선택유형



선택과 관련한 사항들 중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주체이다. 교육과정 문서에 따르면 선택의 주체는 개인으로서의 학생과 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육청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의 상당 부분을 관할 교육청에 이양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의사결정 수준과 주체를 분산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은 일차적으로 지역차, 학교

차, 교원차, 학생차, 등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공통적, 일반적 표준으로 다루어야 할 최소한도의 교육내용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내용 기준의 특성상 폭과 탄력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여전히 표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선택 중심교육과정은 현장 학교에서 실천, 운영될 교육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 시 참고해야 할 ‘공통된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학습자라는 점에서 관할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습자의 진로 선택에 따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택중심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단순히 학생의 요구에 따르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요’는 당사자의 주관적 욕구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요청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다음으로는 선택의 대상인데 여기에서는 과목, 과정, 학교, 교사가 될 수 있으나,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편제표 자체가 일반 선택과목이나 심화선택과목이라고 명칭이 붙어져 과목이 모든 선택의 단위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줄기가 있는 학습 계열성 있는 심화 학습을 위해서는 결코 과목단위로 대부분의 공부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의 결실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교육청과 학교는 일반선택과목의 균형 잡힌 이수와, 심화선택과목의 집중적인 계열적 학습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학습체제를 치밀하게 구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정 선택이든, 교과영역의 선택이든, 과목 선택이든 의미 있는 선택의 관건은 기본적으로 개별선택 대상의 독특성과 이에 바탕한 선택대상 전체의 다양성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선택 결과가 초점, 계열, 계열, 순서 중심을 잃은 것일 때는 효능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결과가 효능성이 있으려면 선택의 핵심적 부분이 계열화된 초점 있는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선택은 선택권을 발휘 할 수 있는 정도, 곧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좌우된다. 이를 좌우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 속한 학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학교에 일단 진학한 이후에는 단위학교의 교사와 교실수의 여건에 의해 학교가 제공하는 과정과 과목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선택과목

3) 한국교육개발원(1996), 교육과정2000 연구 개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p33.

에 배당된 136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 비율은 최대 50%까지 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하도록 한다.”는 지침에 대한 해석이다. 이를 끝이곧대로 해석하면 학생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학생에게 차츰 선택폭을 넓혀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학교가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이 지침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것은 학생 이외의 주체들이 선택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선택권을 행사해 온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개방적이고 미확정적인 방식과 폐쇄적이고 확정적인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여러 개의 과목 중에서 한두 개의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거나, 여러 단위 중에서 일부 단위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특정 교과영역에서 특정과목을 정해진 일정 단위로 이수하게 하는 방식이다. 만약, 교육청이 전자의 방식으로 선택권을 행사하면 학교는 이를 같은 방식으로 학생에게 선택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확정적 선택을 하여 학생들에게 필수로 부과할 수도 있다. 선택이 하위 단계에서는 필수로 전환된다는 점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즉, 시도 교육청은 학교보다, 학교는 학생보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선택에 의해 관내 모든 학교와 학교의 모든 학생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결정하는데 매우 힘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도 교육청은 많은 경우 교과별로 여러 개의 과목 중에서 한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개방적이고 미 확정적 선택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학교교육과정의 결정권을 한껏 높이는 일이 되어 학교 중심교육과정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학교의 경우도 학생에 대하여 이런 개방적이고 미 확정적 선택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결국 이번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선택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생이 균등하게 참여하되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점과 선택 대상은 과정 선택과 교과영역 선택 혹은 과목 선택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 선택의 여지는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좌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

제 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인 11, 12학년의 2학년 동안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역 및 학교 단위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그 권한이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게 되었다. 이제 7차 교육과정이 의도된 대로 운영된다면 우리 학교 교육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혹은 동일학교내 학생마다 다양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⁴⁾

먼저 국가 수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알수 있듯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목(26+기타)과 심화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선택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 생활과 관련된 과목이며,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 표 2 >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의 편제⁵⁾

- ①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 학기 (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 량이다.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 활동에 배당된 단위 수 및 특별 활동 4 단위는 10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 ③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전문교과의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 ④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4) 광병선 외, 한국교육개발원(1996), 교육과정2000연구 개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5) 교육부(1997), [별책4], 고등학교 교육과정 (I), (II)

구 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 과	국 어 도 덕	국어(8) 도덕(2)	국어 생활(4) 시민 윤리(4) 인간 사회와 환경(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사 회	사회(10) (국사 4)		수학 I (8), 수학 II (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 수학(4) 물리 I (4), 화학 I (4), 생물 I (4), 지구과학 I (4) 물리 II (6), 화학 II (6), 생물 II (6), 지구과학 II (6)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수 학	수학(8)	실용 수학(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 이상)*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 이상)*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 이상)*
	과 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기술· 가정	기술· 가정(6)	정보 사회와 컴퓨터(4)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4) 음악(2) 미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영어 I (8), 영어 II (8), 영어회화(8) 영어 독해(8), 영어 작문(8)
	외국어	영어(8)	독일어 I (6), 프랑스어 I (6) 스페인어 I (6), 중국어 I (6) 일본어 I (6), 러시아어 I (6) 아랍어 I (6)	독일어 II (6), 프랑스어 II (6) 스페인어 II (6), 중국어 II (6) 일본어 II (6), 러시아어 II (6) 아랍어 II (6)
	한 문 교 련 교 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 고전(6)
	이수 단위	(56)	24 이상	112 이하
	재량 활동	(12)		
특별 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2.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학생의 능력,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체제이다.⁶⁾ 이러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며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련, 교양의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고 전문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 등 10개 계열로 구분하며, 국제 계열 고등학교 신설에 대비하여 ‘국제에 관한 교과’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은 교과와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고등학교 총 이수단위인 216 단위중 144단위가 배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활동8단위를 제외하고 2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 이수단위(136단위) 전부를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교육이 종결 교육의 의미를 지니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일반 교양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전문화된 교육의 준비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보다 심화된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선택중심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은 학생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일반 선택 과목(26개 과목)과 심화선택과목(53개 과목)으로 구분되어있다. ‘일반선택 과목은 선행 학습의 정도와 관계없이 선택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공통기본 교과와 심화선택 중간의 난도를 가진 과목이거나, 공통 기본 교과보다 난도는 낮되, 실제 생활에 적합성을 강화한 과목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2외국어와 한문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00와 생활”이라는 명칭의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육부(1997), [별책4], 고등학교 교육과정 (I), (II)

선택과목의 편성·운영에 있어서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일반 선택과목은 24단위 이상을 선택 이수하고 심화 선택과목 112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과 교육청은 최소 28단위에서 최대 80단위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는 최소 28단위에서 최대 80단위를 선택하며 학생은 최소 28단위에서 최대 50% 즉 68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과목(136단위)의 이수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p>[선택과목이수 136단위의 이수]</p> <p><조건1></p> <p>①일반선택과목은 24단위 이상을 선택 이수한다.</p> <p>②심화선택과목은 112단위 이상을 선택 이수한다.</p> <p><조건2></p> <p>③교육청은 최소 28단위에서 최대 80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p> <p>④학교는 최소 28단위에서 최대 80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p> <p>⑤학생은 최소 28단위에서 최대 50% 즉 68 단위를 선택 할 수 있다.</p>
--

가.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의 전제

1) 소교과 집중 심화 학습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에서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의 흥미, 적성, 진로 등에 맞추어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교2,3학년에 개설된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공부와 아울러 심도 있는 공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구안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가정 등을 두루 공부해야 한다는 요구는 학생들은 장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교 2,3학년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진로에 맞추어 적은 수의 교과를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몇몇 인접교과의 교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제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고, 진로에 맞는 초점 있고,

집중적이고, 계열성 있는 학습 곧 소교과 심층 학습이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시험 준비 연습식의 공부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한 고등학생의 공부의 성격이 자신의 개성, 장기, 특기, 소질, 적성, 진로를 살리는 공부,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쏟는 공부, 모든 과목에서 평균적으로 우수한 것 보다 특정 영역에서 탁월한 학생을 기르는 공부를 더욱 필요한 공부로 보았다. 돌이켜 보면, 이런 식의 공부는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 목적계 고등학교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고, 실업계 학생들은 매우 세분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 분야를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될 때 의의 있는 고교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2년만에 무엇을 다 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등학교 후반기에는 최소한 자신이 더 잘하는 혹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싫어하거나 더 못하는 교과목은 결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 그 전문성을 기르는 짝을 우리는 고등학교 후반기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교육에 문제가 되어 왔던 다 교과 피상 학습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교육과정 편제 설계 당시에도 무척 강조되었다⁷⁾.

2) 교육적 선택의 내실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행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다.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나 선택의 결과로서 무엇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면 자유 선택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편성·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과정은 흔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알려져 있다⁸⁾. 이 질문은 곧 무엇을 선택하며 포함시키고 가르치고 배제하여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 있는 대답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삶과 공부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따지는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7) 광병선 외(1996), 교육과정2000 연구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8) 박도순, 홍후조(1998), 교육과정과 교육 평가, 문음사.

있다. 역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가르칠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름하여 선택의 전통, 선택된 전통이라고 한다. 많은 경우 교과 내용이나 학교의 지배적 교육 활동과 내용이 사회의 재배 집단의 견해와 가치를 대변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로 선정 조직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무척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것이 되어 버려 학교교육을 거친 어느 누구나 마음 속 깊이 내면화하게 되는 지식, 가치, 태도,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이 순간순간의 선택의 총화라고 할 수 있듯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많은 것들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선택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 채용, 교과서 채택, 학생 선발, 진학할 학교 선택 등등 그 모든 것이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일반이 선택과 깊이 관련 되어 있듯이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선정, 선택과 관련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의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배우는 기회, 삶의 기회도 선택과 깊이 관련 된다. 선택은 또한 학생들의 학습의 깊이 와 넓이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는 철학적 논란과 관련된다. 즉, 소 교과를 심층 학습하도록 하는 것과 다 교과를 균형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선택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안내된 선택이어야 한다. 선택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때 선택은 좋은 것, 선택은 넓은 것이어야 하는데 학생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오도된 관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선택이란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는 선택, 적성과 소질에 맞는 선택, 자신이 좋아하고 요구하는 선택,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할 대상이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향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습은 초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선택이 어떤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옳느냐 하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 학교, 학생이 28단위 이상 선택하는 분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그것이 장차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안내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과목일지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길”을 가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방안⁹⁾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과목 선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목 선택은 대학의 예에서와 같이 충분한 교실수와 충분한 교사수를 전제로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적 소요는 엄청날 것이다. 소위 선진국의 대규모 공립학교가 취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학교가 설계한 과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특정 성격의 과목들에 한해 혹은 일주일에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에 한해 학생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5년간 문·이과라는 두개의 과정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운영해 오다가 특수 목적계 고교가 과학, 외국어, 체육, 예술 등을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이과라는 두개의 과정이 지닌 불합리성과 부적절성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정의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과 아울러 학생에 의한 과정 구성이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대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과목선택이 우선이 아니라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이 발전적으로 해체된 자리를 메워줄 대안적 과정 방안과 도입이 절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학교의 과목 선택 분량을 활용하여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에 초점과 계열, 심화와 집중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1) 집중과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자신의 소질, 능력, 적성, 진로에 맞출수 있도록 충분히 작아야 하며 아울러 특정 교과를 충분히 심화하여 공부할 정도로 ‘집중화된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 과정 자체를 단순화, 소량화, 집적화하여 학생의 학습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집중과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표3>

집중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교 2,3학년 과정 이수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와 요구에 따른 초점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1-3개의 집중교과를 중심으로 40-75단위를 이수하게 하는 학습체계”라고 할 수 있다. 집중과정은 고2,3학년에서 이수하는 심화선택과목 112단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 즉, 학생들은 고교 3년간 216단위를 공통으로 80단위(국민공통기본교과56단위,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각각 12단위), 일반선택과목 24단위 이상, 심화 선택과목을 112단위 이하로 이수하게 된다.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표 3> 7차 교육과정의 집중과정과 이전과정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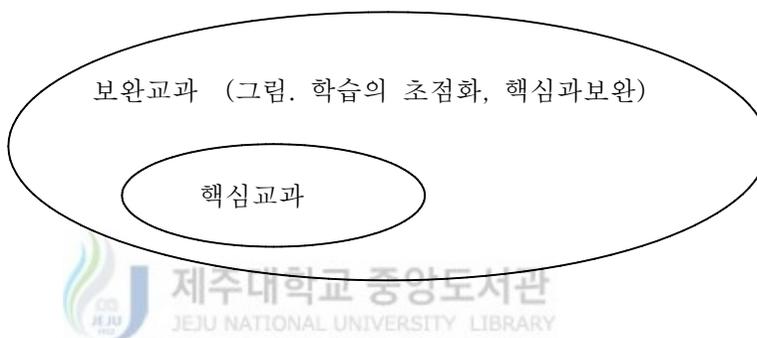
비교준거	집중과정	이전 과정(6차과정)
종류	인문, 사회, 외국어, 수리, 과학, 정보, 음악, 미술, 체육, 직업등 10개 교과를 1-3개로 조합하는 여러 개의 과정 가능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 직업과정
교과목의 구성	해당 집중교과에 속하는 심화선택과목들과 분산 이수하는 인접교과의 과목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심임
단위수의 크기	1-3개 집중교과 40-75	3년간 204단위
학생선택의 폭	학생들은 집중교과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으므로 선택폭이 넓다.	대부분의 학생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매우 좁다.
구성의 융통성	매우 높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적성과 진로 반영정도	매우 세분화되고 조합이 가능하므로 높다	매우 낮다
진로변경	융통성있고 쉬운 편이다.	경직되고 매우 어렵다.

집중과정은 학습의 넓이보다 학습의 깊이를 추구하며 다 교과 피상학습이 아니라 소 교과 심층학습을 선호하며, 일반선택 과목은 제외하고 주로 심화선택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교과를 중요시하기보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도움이 되는 교과를 모두 인정한다. 과정을 구성하는 단위수의 크기로 보면 대규모라기보다 다양한 조합과 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절히 작으며 고교 3년간 분산 이수하기보다 특정 학년 학기에 집중 이수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과정을 구성할 때에는 교육과정 편제표 상에 나타난 일반 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중에서 심화선택과목만으로 구성하거나, 심화선택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공통기본 교과와 심화선택 중간의 난도를 가진 과목이거나, 공통 기본 교과보다 난도는 낮되, 실제 생활에 적합성을 강화한 과목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2외국어와 한문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00와 생활”이라는 명칭의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일반 선택과목은 생활 교양적, 탐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과정을 구성할 때에는 심화 선택과목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심화 선택과목만으로 과정을 구성한다면, 심화선택과목들 중에서 교과별로 과목을 선택하

여 구성하거나, 심화선택과목들 중에서 집중이수 할 교과 영역별로 구성하거나. 심화 선택과목들 중에서 집중 이수할 교과영역과 보완할 과목들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습에서는 심도있고 집중적인 학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심화 선택과목은 학습의위계상 각 교과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계열성 있는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과정은 심화 선택과목들 중에서 집중 이수할 교과 영역별로 구성하거나, 심화선택과목들 중에서 집중 이수할 교과영역과 보완할 과목들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교과영역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가장 필요한, 매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1) 핵심적으로 선택이수 할 것(core)과 (2) 부수적으로 선택 이수 할 것(options)으로 구성된다. <그림 2>

필수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학습하는 교과목과,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후자의 일부는 학교나 학생의 형편에 따라 선택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 과정을 구성하는 교과목들을 크게 핵심과 보완으로 나눌 때 심화 선택과목들 중에서 집중 이수할 교과 영역들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즉 핵심부분만 규정할 수 도 있고, 심화선택과목들 중에서 집중 이수할 교과 영역들과 보완과목들로 구성할 수도 있다. 계열이나 과정을 만들어 이수시키는 경우 문제의 핵심은 이 핵심 영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핵심 영역을 어떤 특성을 띤 묶음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 문 이과로 대변되는 현행 과정, 학부제로 대변되는 대학변화, 사회문화적 요구 등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인가이다. 핵심 영역이 분명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은 학생

학습의 초점화 집중화· 결실화 달성과 제한된 학교 자원의 효율적· 집약적· 탄력적 활용에 있다.

집중과정은 그 뼈대를 이루는 집중교과의 심화 선택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는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집중과정 = 1~3개의 집중교과의 심화선택과목들

학생이 선택한 집중과정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교과를 집중교과로 표현 할 수 있다. 집중교과는 국어(한문 포함), 사회(도덕 포함), 외국어(제2외국어 포함), 수학, 과학, 정보(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직업(기술·가정 포함)의 10개이다.

①인문(국어,한문) ②사회(도덕, 지리, 역사, 일반사회) ③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④수리(수학) ⑤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⑥정보(컴퓨터, 정보기술)
⑦음악 ⑧미술 ⑨체육 ⑩직업

집중과정은 그 핵을 이루는 교과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1개 교과 집중과정, 2개 교과 집중과정, 3개 교과 집중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개 교과 집중과정의 종류 및 집중교과의 구성교과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학생들은 심화 선택과목을 100단위 내외에서 이수하게 되는데 집중과정을 통해 40-60단위를 이수하고 나면 나머지는 분산하여 이수하게 된다. 학생이 선택한 집중과정의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제외하고, 선택과목 중 심화 과목에 배당된 단위수를 전부 채우기 위하여, 분산 이수하는 심화 선택과목들을 인접 교과라고 부른다. 인접교과의 교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고려된다.

첫째, 학생의 학습이 교과를 중심으로 집중 이수될 수 있도록 구안한다.

둘째, 집중과정은 집중 선택 이수하는 교과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셋째, 집중과정의 교과는 국어(한문 포함), 사회(도덕 포함), 외국어(제2외국어 포함), 수학, 과학, 정보(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직업(기술·가정 포함)의 10개를 기본으로 한다.

<표 4> 집중교과와 구성교과목

집중과정	집중교과	구성 교과목	단위
음악	음악	시창·청음(10), 음악사(4), 연주(8), 합창·합주(8), 컴퓨터와 음악(4), 세부전공실기(22)	56
인문	국어	독서(8), 작문(8), 문법(4), 화법(4), 문학(10), 한문고전(6)	40
사회	사회	지리(12), 역사(12), 사회(12), 도덕(6)	46
외국어	영어	영어(Ⅱ 이상 32), 제2외국어Ⅱ(택1, 6), 제2외국어Ⅲ(택1, 8)	46
수리	수학	수학Ⅰ(8), 수학Ⅱ(8), 미적(6), 확률통계(4), 이산수학(4), 수학연습(10)	40
과학	과학	과학Ⅰ(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두선택(16), 과학Ⅱ(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중에택2(12), 과학Ⅱ 과목들의 실험/관찰/프로젝트Ⅰ, Ⅱ(12)	40
정보	정보	정보공학기초(4), 프로그래밍(6), 응용s/w의 활용(6), 웹의 설계와 활용(6), 정보통신(6), 멀티미디어(6), 컴퓨터그래픽(6), 컴퓨터실습(6)	46
체육	체육	스포츠과학(4), 무용(4), 육상(4), 체조(4), 수영(4), 구기(4), 세부전공실기(32)	56
미술	미술	미술사(4), 소묘(12), 회화(4), 판화(4), 조소(4), 디자인(4), 공예(4), 영상미술(4), 세부전공실기(16)	56
직업	직업	학교 자체, 인근학교 및 직업교육 센터에 위탁교육(62)	62

넷째, 집중교과의 이수단위는 교가가 1개 일 경우는 40단위 내외, 교과가 2개 일 경우 60단위 내외, 교과가 셋일 경우 75단위 내외로 한다.

다섯째 집중과정 교과목의 심화선택과목은 관할 교육청에서 규정한 바를 학교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는 교과가 1개, 2개, 3개인 집중 과정 중 어느 경우를 설치하더라도 학

생들이 최소 2개 이상의 집중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학생은 집중교과를 기본으로 과정을 이수하되 인접 교과의 이수단위를 다양하게 변경 조합하여 집중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Ⅲ. 학교 간 협력에 의한 편성·운영 방안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은 결국 집중과정을 어떻게 설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안, 방법, 제도, 모형은 다양할 수 있다. 즉 개별 학교에서 처리 할 수도 있고 개별 학교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인근 학교와 협력 할 수도 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1) 개별 학교가 학생들을 입학시켜 놓고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과 (2)학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개별 학교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학교군내 학교들이 연합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학교내/ 학교간 운영 방안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들처럼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 모두를 수용하여 개별 학교에서 여러 개의 집중과정을 설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체능 과정을 운영하는데 단위학교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관할 교육청 별로 5-10개의 학교를 학교군으로 하여, 각 학교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의 개설 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여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을 하는 것이다. 음악, 체육, 미술 등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학교군 별로 특정 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집중과정을 설치, 편성·운영하고 더 나아가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학생을 선별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1. 학교 간 협력에 의한 편성·운영 방안의 전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¹⁰⁾를 살펴보면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이 선택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 간 협력에 의한 선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이 연구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특성화 방안이 무시된 채 학교 간 협력 통합운영이나 학교 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많다. 실제로 개별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익숙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빠르게 부응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특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는 빠른 시간내 충족 시키기 힘들지만 학교간 협력에 의한 방안은 현재의 교육과정상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소수지만 예체능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예체능 과정을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장 현재의 여건상 운영하기 힘든 예체능 과정을 학교 간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으로 몰아 연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제시되었고 실제로도 이러한 방안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체능 과정이 개별 학교에 의해 과정개설이 어렵다고 생각되었다고 또 단순한 학교 간 협력에 의한 편성·운영방안만 검토되어진다면 이것으로 성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이 검토되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특성화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특성화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방안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으로 인해 소수 집단 특히 예체능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10) 홍후조 외(1998),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 과정 평가원.

가. 학교 간 특성화 편성·운영 방안

많은 사람들은 특성화 방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특성화 방안이란 것이 각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과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음악, 미술, 체육, 직업, 정보 등은 각 학교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 과정들은 그렇지 않다. 갑, 을, 병 세 학교가 똑같이 외국어 특성화 학교가 될 수 있고 과학 특성화 학교가 될 수 있다. 단지 특성화라는 것은 개별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것, 대학의 전문성 높은 교수에 의해 강좌가 개설되듯이, 교사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기준이 제시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나 학교의 특수한 필요에 의해 학교 나름의 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에 주어진 과목을 통합하여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이나 코스, 프로그램을 개발 개설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전통이 확립된 구미의 경우 매우 흔한 일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와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취한 미국에서도 대학 준비 고교는 대학이 정한 입학 필수 과목과 이수 단위에 의해 고교의 교육과정은 제한되어왔다. 그러나 진보적 교육이 중등학교로 확대 적용되면서 무시힘으로 대학에 입학하기로 대학과 고교가 협약한 1930년대의 '8년 연구(The Eight Year Study)'를 계기로 학교의 과목 개발 설치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다¹¹⁾ 호주의 경우 학교 설치 과목(Other Approved Studies)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약 3,000개의 학교 설치 과목이 개발 개설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약 10,000개로 늘어났다

학교 교사들에 의한 과목 설치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진전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교사들이 점차 학생들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들에 대해 교육 구성원들이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초등학교의 열린 교육, 학교 재량 활동 시간, 대안 학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비평준화 지역의 일부 학교들이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 재구성된 과목들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제를 급격하게 변화시켜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일반 선택 과목에 '기타'를 두어 학교가 이를 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 체육 분야나 정보 직업 관련 교과

11) 홍후조.1998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들은 전문 교과에서 차용하여 심화 과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신설 확대되는 재량활동은 학교가 창의 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배려이다. 이는 모두 학교의 교사 혹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배려하고 할 수 있다.

학교의 과목 설치의 근거는 (1) 일반 선택 과목 중 ‘기타’를 학교 자체에서 과목을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과 (2) 예술, 체육, 정보, 직업 등은 전문 교과의 과목들 중에서 차용하여 심화 선택 과목을 설치 한다는 데 있다.

또한 학교가 과목, 과정을 특성화 하여 설치해야할 필요성은 선택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규모의 영세성이 그 이유이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제가 제시 하는 바가 다양하고 수효로 보아서도 충분히 많다고 하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를 모두 다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난다. 즉,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어쩔 수 없이 특정 교과를 중핵으로 하는 단일 집중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소규모 학교 운영 전략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교 교육과정에는 보통 교과목이 90개 이상(전문 교과목은 420개 이상) 제시되어 있다. 규모가 아무리 큰 학교라고 할지라도 이를 모두 다 개설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학생들이 일정 부분 선택을 요구할지라도 학교가 개설할 능력은 한정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일정 지역의 학교들은 연합 혹은 분담하여 학생들에게 개별 학교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여러 학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상호 보완적 방식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별 학교 입장에서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정 지역의 학교의 학교들로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모두 다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정 지역 학교들 사이에 협조 체제의 구축 및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학생의 높은 요구이다 : 학생들이 요구는 자신이 힘들여 공부해도 성과가 없는 교과보다는 공부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새롭고, 장래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사의 주비 미흡, 기존 교과목 교사의 구비 등을 이유로 이런 요구를 쉽게 묵살해 왔다. 그러나 선택 교육과정 연구와 관련하

여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나타난 바로는 학생들은 정보 관련 혹은 세계화 관련 교과목(세계사, 세계지리, 제2외국어 등)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다. 이런 교과목들은 교육과정 개정 당시에는 대변해 줄 이도 인식도 부족하여 소홀히 된 영역이다.

(3)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의 통폐합 필요성이다 : 수학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2년 의 4학기에 ‘수학Ⅰ’의 8단위와 ‘수학Ⅱ’의 8단위 및 ‘미분과 적분’을 모두 다 이수하기 어렵다. 과목의 단위가 지나치게 크고 학생들이 선택 그 단위를 모두 다 이수하기엔 부담스러운 경우 과목의 단위를 나누어 설치할 수도 있다. ‘영어 회화’ 8단위는 학생들이 4단위만 이수할 수 있도록 ‘기초 영어 회화’ 4단위와 ‘고급 영어 회화’ 4단위로 나누어 개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각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교과 과목을 많이 이수하도록 전략적으로 학생들이 ‘진입’하거나 ‘퇴출’하기 쉽도록 단위를 나누어 설치할 수도 있다.

(4) 효과적 학습의 필요성이다 : 새로운 교육 철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외국어는 단순히 언어로 배우기 보다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역사, 문화, 지리, 경제, 정치, 종교 등과 더불어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아래 지역 연구와 같은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5) 교과 성격의 구현 필요성이다. : 기존의 과목들이 지나치게 문자로 쓰여진 교과서를 언어를 통한 강의법으로 전달되는 데 반해 새로운 교수법 도입의 필요 혹은 그 교과 성격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할 수도 있다. 사회과의 ‘사회 조사 프로젝트’, 과학과의 ‘실험’ 코스, 영어과의 원어민에 의한 ‘회화’ 코스 등이 이런 성격에 의해 학교가 개설한 과목이다.

학교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개별 학교는 학교의 규모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집중과정을 최대한 개설하여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학교는 갖추고 있는 시설 설비 여건, 교사의 확보 및 충원 정도, 학생들의 요구, 인근 학교와 협조 및 교육청과 협조 등에 바탕하여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집중과정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정한다. 이와 같이 집중과정 수준일 수도 있고, 교과목 수준일 수도 있다. 학교의 과목 설치 방안은 (1) 기존의 교육과정 편제표에 나타나 있는 기존 과목을 통폐합 하는 경우와, (2) 새로운 과목을 개발 설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

- 소규모 학교가 1개 교과 집중과정만 설치하여 학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경우
- 설치한 여러 개의 집중과정 중 특정 집중과정만 강조하는 경우
- 특정 집중교과의 특정 과목을 재학생 모두에게 필수로 부과하는 경우

교과목 수준에서 보면,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 활용’, 세계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정 지역의 문화, 역사, 언어, 정치, 경제를 종합하는 ‘00지역 연구’, 교육의 지역화에 상응하여 ‘00지방 연구’.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이 선택한 집중 영역의 ‘00과제 연구’등을 부과하여 학교의 특성을 실릴 수 있다. 이 경우 단위 수는 학교 자유로 하되 10단위 이하가 적당할 것이며, 재학생 모두에게 필수로 부과할 수도 있다.

1개 교과집중교과를 개별 학교가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만들려고 한다면 학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① 특성화된 집중과정의 교과에 속하는 심화과목을 더 많이 설치
- ② 특성화된 집중과정의 교과에 속하는 심화과목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과목 코스 신설
- ③ 특성화된 집중과정의 교과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당 교과 교사/강사 더 많이 확보
- ④ 특성화된 집중과정의 교과의 졸업 이수 단위를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
- ⑤ 특성화된 집중과정의 교과의 과목 이수를 일찍부터 이수 가능하도록 편성
- ⑥ 특성화된 집중과정의 교과의 과목 이수 방법을 학생의 능력에 맞게 조정

특성화된 집중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들은 특성화된 집중과정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 2개 이상의 집중과정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학교의 규모에 맞추어 가능한 여타 집중과정을 최대한 많이 개설하여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즉, 특성화된 집중과정은 그 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집중과정이 지 유일한 집중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2학급을 모집하는 학교가 과학 집중과정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정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4학급 정도)은 과학

집중과정에 들 것이나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집중과정(인문, 사회, 외국어, 정보 등)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결국, 특성화된 집중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무특성의 획일적인 학교에서 탈피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액센트가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학교들은 또한 그 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특성화한 집중과정의 일부 과목을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림 4> 집중 과정이 특성화된 학교 학생들의 이수 모형

집중과정 (집중교과)	과학 집중과정 45단위	수리 집중과정 40단위	외국어 집중과정 40단위	인문 집중과정 40단위	정보 집중과정 40단위
	↑	↑	↑	↑	↑
인접교과	선택91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96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96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96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96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	↑	↑	↑	↑
공통 과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학생공통 80단위 (국민공통56+ 재활12+ 특활12)				
집중선택 이수과정	음악 집중과정 45단위	과학 집중과정 36단위	정보 집중과정 45단위	외국어 집중과정 36단위	인문 집중과정 36단위
	↑	↑	↑	↑	↑
학생/학교 교육청 선택과정	선택 91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100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91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100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선택100단위 일반/심화 (분산이수)
	↑	↑	↑	↑	↑
모든학생 공통과정	학생공통 80단위 (국민공통56+ 재활12+ 특별12)				

<표5> 개별 학교가 택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예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과목들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 종류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물리 I (4), 화학 I (4), 생물 I (4), 지구과학 I (4), 물리 II (6), 화학 II (6), 생물 II (6), 지구과학 II (6) 실험코스 설치	①물리-화학-실험-수학 ②생물-지학-실험-수학등
수리 특성화 프로그램	수학 I (8), 수학 II (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수학(4) 올림피아드 코스 설치(AP)	①수학 I -수학 II-올림피아드 ②실용수학-수학-수학 I -수학 II ③실용수학-수학 I -미적분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영어 I (8), 영어 II (8), 영어 회화(8), 영어독해(8), 영어 작문(8), 독일어 II (6), 프랑스어 II (6), 스페인어 II (6), 중국어 II (6), 일본어 II (6), 러시아어 II (6), 원어민이 강의하는 코스 설치	①영어-지리-역사-문화+ 일본어-지리-역사-문화 ②+ 프랑스어-지리-역사-문화
인문 특성화 프로그램	철학(4), 논리학(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창작활동	①국어-시, 소설쓰기 ②국어-대본, 논설쓰기, ③국어-편집, ④국어-한문-고전등
사회 특성화 프로그램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지역연구, 현장탐사 코스 설치	①역사-지리-탐사-지역연구 ②정치-경제-철학 ③도덕-법-철학-문화 등
정보 특성화 프로그램	공업기술(6), 정보사회와 컴퓨터(4),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자 공업, 통신, 반도체, 전자회사 실습등 컴퓨터 도사 코스 설치	①컴퓨터 프로그래밍 ②애니메이션 제작 ③CAD 등
음악, 미술,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	심화 전문(미술, 음악, 체육, 연극영화)중 한 가지 포트폴리오 산출	①음악 ②미술 ③체육(레크리에이션) ④연극영화 등
직업 특성화 프로그램	해당 영역 전문 교과 개설 설치 과목과 단위수, 이수 기간은 학교장 재량	①자동차 수리 ②컴퓨터 ③디자인 ④저기 ⑤의료보조 등

○ 도덕은 심화 과목이 전부 8단위이므로 별도 과정이 되기 어려움

○ 외국어과는 대체로 영어와 제2외국어 하나를 프로그램으로 설치 가능. 제2외국어

는 I 과Ⅱ를 합쳐 12단위이므로 초급을 조금 벗어난 수준이므로 별도 과정이 되기 어려움

○ 음악, 미술, 체육 집중과정과 정보 과정은 주로 전문 교과에서 선택하거나 학교별로 설치할 수 있음.

2. 학교간 통합 편성 · 운영 방안

이 방안(모형)은 단위 학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학교들이 가까이 있는 도시 지역 학교에서의 선택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이다. 교과별 교사가 다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사회에서 비정규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있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 하더라도 통학거리가 멀지 않은 도시 지역을 상정하고 구안한 것이다.

이런 운영방식은 개별 운영체제에 익숙한 우리의 경우 이런 식의 연합 운영은 서툰 편이고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의 1,121개의 일반계 고교 중 광역시와 시 지역에 속한 학교 약 800개교(71.4%)가 이런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수 900명이상(학급수 20학급)으로 볼 때 753개교(67.2%)의 학교들이 이런 여건에 해당되는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학교군(권역)” 개념의 활용¹²⁾

현재 중학생들의 취학 범위를 정하거나 학교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종종 활용되는 단위는 교군이다. 이는 교육법의 여러 군데 규정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단위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 특히 교육자치제의 확산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관할권이 기초 자치 단체 수준으로 하향 이양될 전망에 비추어 각 교육 자치구는 유 초 중 고등학교를 일관되게 운영할 여지가 높아진다. 학교군에 여러 학교들간의 역할

12) 조난심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cr97-33,

분담 혹은 협력을 통해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학교군별 연합 운영 체제 구축

위와 같은 특성화된 개별 학교들이 모이면 일정 지역의 학교들은 교육과정 편제가 시사하는 거의 모든 집중과정과 학생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집중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일정 지역 학교들(특히 공립학교)이 설치한 집중과정을 전부 합치면 교육과정 편제가 시사하는 대부분의 집중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간 역할 분담을 계획, 조정, 지도한다. 이는 학교간 역할 분담을 통한 학생의 학습 기회를 최대한 보장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 개략적이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학생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7-11개교를 묶는 “학교군”별 고교 연합 운영 체제를 도입한다.

○ 학교들이 비교적 규모가 일정하고 밀집해 있을 때 학생들의 통학 거리, 학교의 여건, 종류, 전통, 시설 설비 등을 감안하여, 학생 인구 1만2천명-2만여명, 학급수 240-360 학급, 학교수 7-11개의 학교들을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는다.

【단위 학교군의 규모】

학생수 : 1만 2천명-2만명

학급수 : 240-360 학급

학교수 : 7-11개

○ 현재의 개별 학교 운영 체제를 과감히 벗어나 일정 지역내의 학교를 네트워킹하여, 크게 보면 하나의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군별 고등학교 연합 운영 체제(Coalition of Local Schools)를 도입한다.

○ 고등학교 연합 운영 체제하여 각 학교들은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상호 역할 분담과 협동을 하게 한다.

○ 학생의 거주지를 중심을 수개의 학교들이 집중과정 설치에서 역할 분담에 협조하는 학교군 체제를 도입하면 아래와 같은 잇점이 있다.

【학교군 도입의 잇점】

- 학교간 역할 분담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의 특화 기능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허용
- 교사들간의 원활한 교류, 순회 교사 활용 용이
-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을 통합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가능
- 유 초 중 고교로 이어지는 일관된 교육 가능
- 지원자가 적은 체육, 음악, 미술 집중과정 등의 학생들의 효과적 수용과 적합한 교육 가능
- 학교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이수 상호 교류 인정 가능
- 학교간 협조 증진과 선의의 경쟁 유발 촉진
- 학교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설 가능 (교사 대상 연수등)
- 학교간 공동 연구 개선 사업 가능(교육 혁신 선도 학교와 협동 학교)
- 학교간 거대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가능
- 공사립간의 협조 체제 촉진
- 학교구내 학교간 친목 도모 가능 (공동체육대회, 백일장, 민속놀이)
- 기초 자치 단체의 교육 투자 유발 촉진
- 지역 사회 학교 실현 가능
-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교육적 활용 용이 등
- 근거리 교육권역 설정으로 협의와 교류 수월
- 학생들의 통학 거리 단축 가능
- 학생 생화 지도 용이와 학교 주변 폭력 문제 축소 가능
- 학교간 학생 이동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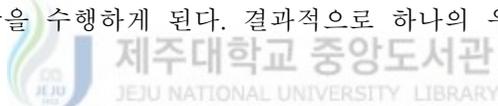
② 학교군에 속한 학교들간의 역할 분담과 협동을 위하여 각 학교 교장을 중심으로하는 “고등학교 연합 운영 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한다.

○ “고등학교 연합 운영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학생의 공동 선발과 배치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과목 분담 개설(제2외국어)과 과목 공동 개설(예체능, 작업 과정 등)

- 학교별 설치 가능한 과정 결절 및 강조점을 두는 특성화된 집중과정 결절
- 학교별 학급수,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결정
- 교원 및 교수 자원의 네트워크: 단위수가 적은 과목 교사 혹은 시간제 교사의 통합 활용제 구축
- 시설 자원의 네트워크: 개별 학교가 갖추기 어려운 실내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 교통 통신 수단 (학교 버스 운영) 공유
- 공동 연수
- 연구 중심 학교 및 협력 학교 구축
- 학사 업무 협조: 필요한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도 협의체 구성 가능
- 학교의 행·재정 지원 관련 사항 등

○ 지역 내 대표 학교를 두어 대표 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연합 운영 협의회”를 운영하되 회원 학교들의 자율 결정에 따라 대표 학교는 운번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개별 학교들은 교과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해당 교과 영역에 있어서는 중심 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우산 아래 있으면서 다핵화된 체제가 된다.



○ 사립 일반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군 고교 연합 운영 체제에의 소속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사립고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서나 사립고교에 대한 교육청의 공공 재정 지원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가급적 이 체제에 속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신 사립학교가 이 체제에 속함으로써 사립학교는 공 사립간 교사 순환 근무 학생선발에 드는 제 경비, 학생의 이동, 시설 설비의 공유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립고는 가급적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가 개설할 과정들을 적절히 배분한다. 특히, 사립고가 소위 인기 교과 위주로 특성화 과정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립고는 학생이 원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는 비인기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줌으로써 학생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학생은 특성화된 학교들 중에서 선택하여 선 복수 지원한다.

○ 선 복수 지원의 경우 학생 선발의 방법은 현행 평준화 정책의 기초와 기틀을 유지

하면서 학교군 내에서만이라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는 교육개혁안에 추구하는 교육 서비스 공급자간에 적절한 수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평준화 지역 학교에 학생들 사이의 극심한 학업 성취 격차의 심화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간 격차의 심화로 비교육적 양상을 낳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 입시로 두 체제 속에 학교 간 경쟁이 극심하여 0교시 수업,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수업의 왜곡을 낳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학교가 학생들이 지닌 소질, 적성, 특기, 진로에 따라 학교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학생들은 중학교 전과목 성적 총점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특기 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학교군 학교들이 개설하고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중에서 집중 이수하려는 집중과정을 특화하여 개설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한다.

○현재 학군처럼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 모든 일반계 고교를 하나의 학교 지원 단위로 하여 학생들이 선 복수 지원하도록 한다.

○학교는 학생 모집 계획을 중학교 3학년 초에 학생들에게 미리 배포한다. 학교별 안내서에는 학교가 3년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집중과정 및 교과목 개설 계획 및 집중과정별 필수 이수 과목 및 단위수를 안내하고, 학교의 특성화 집중과정을 자세히 안내한다. 기타 필요한 고교 입학 지원서와 작성 요령 안내를 덧붙인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고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학교에 들어와 집중과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학교내의 집중과정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이를 주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 장에서 학교 선택보다 집중과정 선택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제표가 시사하듯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조삼모사에 불과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수시기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간 보다 나은 교사 확보 및 시설 구비 노력으로 학교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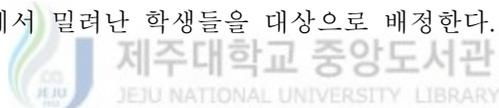
④ 학생들의 지원 상황에 따라 학생을 후 추첨 배정한다.

○고교 연합 운영 협의회에서 학생의 요구와 집중 이수할 집중과정을 고려하여 학교 별 학생 선발 범위(모집 학급 수)를 배정한다.

○선 복수 지원한 학생들은 학교군 별로 추첨 배정한다. 중학생 수업이 입시 준비 수업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경쟁이 격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학생 선발과 연계하여 개별 학교는 자기 학교의 특성화된 집중과정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특성화된 집중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의 중학교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경쟁이 촉발되어 중학교 수업이 다시 고등학교 입시에 얽매이게 되므로 이를 피하도록 한다.

•1차 선발은 정원에 모자라는 학교들은 1차 지원자를 모두 입학 허용하고 추후 추가 모집 공고를 내어 보충한다. 정원이 넘치는 학교들은 1차 학생 선발에서 근거리 배정 원칙을 고려하여 추첨 배정한다.

•2차 선발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과정에 추가 지원자를 입학시키거나 추첨으로 1차 지원 학교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⑤ 학교는 유연한 진로 선택 및 변경 체제를 유지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했다면 하더라도 학생들 중에는 1학년을 지내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것이다. 학교군내 학교들은 학생이 학급을 옮겨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집중과정을 가진 학교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연한 학생 전입학 시스템을 구축한다.(진로의 중도 변경, 학생의 선택권 존중)

○학생들의 학교간, 집중과정간 수평적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학교는 단위제의 본래 취지대로 단위제 운영을 강화한다. 단위제 다운 단위제운영은 교과를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고 성취 교사를 줄여 주고 교사의 순회 근무를 학기 단위로 시행할 수도 있게 한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입학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진로 변경 기회가 주어지므로 교육의 과정에서 진로 지도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진로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론상 아래와 같이 거의 매학기에 걸쳐 학생들이 진로 변경을 원하게 된다. 처음에는 대폭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소폭 이동이 있을 것이다.

IV.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예능과정 학교간 협력 편성 · 운영 예

학교간 협력 편성 · 운영방안의 전제로 특성화 방안이 이루어지면 예체능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형태의 ‘학교군’ 개념의 학교 간 협력 편성 · 운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분석하고 설문지를 보완자료로 삼아서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각 학교는 올해(2003년) 7차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처음으로 적용된 선택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간 협력 편성 ·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 · 운영 분석 및 비교



가. 일반 현황

제주시는 평준화 지역으로서 시내 총 8개교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다. 이번 제7차 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수와 각 학교의 학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 학생수(2학년) 및 학급현황

설립	학교	남	여	합
국립	A	105	112	217
공립	B		444	444
	E	379		379
사립	F			자료없음
	G	277		277
	D			자료없음
	H	321		321
	C		298	298
계		1082 (F고제외)	854 (F,D고제외)	1936 (F,D고 제외)

설립	학교명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국립	A	6	6	6	18
공립	B	12	12	11	35
	E	11	11	11	33
사립	F	10	10	10	30
	G	8	8	9	25
	D	8	8	8	24
	H	9	9	11	29
	C	8	8	8	24
합계	총8개교	72	72	74	218

국·공립학교¹³⁾와 사립학교¹⁴⁾의 비율이 1:1.5정도로 사립학교의 학생수가 좀더 많다. 다음은 단위학교의 집중과정 선택 현황이다. 대학 부속 고등학교의 경우, 실기지도를 위한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개설할 수월할 수도 있지만 제주시 고등학교의 대학부속고등학교인 경우 학생, 학급수가 적어 실제로 3개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UNIVERSITY LIBRARY

나. 단위학교 집중과정 개설 현황

<표 7> 집중과정 개설현황

	H	C	E	F	A	B	D	G
집 중 과 정	인문·사회	인문·사회1						
	자연·과학	수학·과학	과학·기술	자연·이공	자연·이공	과학·기술	수리·과학	인문·사회2
								수리·과학1
								수리·과학2

13)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2003), 학교 교육계획서.
 제주제일고등학교(200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중앙여자고등학교(2003), 학교 교육계획서.

14) 남녕고등학교(2003), 학교교육계획서.
 대기고등학교(2003), 경영계획서.
 오현고등학교(2003), 교육계획서
 제주여자고등학교(2003), 학교 교육계획서
 신성여자고등학교(2003), 학교 교육계획서.

	집중과정수	학급수	인원	학급평균 학생수	집중 과정수	학급수	학급평균 학생수
인문사회	7	27+ F,D	995+ F,D	36.85	9	31	36.58
인문사회1	1	2	69	34.5			
인문사회2	1	2	70	35			
수학과학	1	2	82	41	3	4	34.5
수리과학	1						
수리과학1	1	3	102	34			
수리과학2	1	1	36	36			
과학기술	2	9	301	33.4			
자연이공	2						
자연과학	1	5	84	36.8			

<표 8> 학기당 이수 교과 수 (2003년, 2학년기준)

	A		B		E		F		G				D		H		C		평균
	인문사회	자연이공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자연이공	인문사회1	인문사회2	수리과학1	수리과학2	인문사회	수리과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인문사회	수리과학	
과목	12	12	13	14	15	15	11	13	12	12	13	13	12	13	11	13	12	12	12.6

각 학교들의 과정별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연·과학, 수학·과학, 자연·이공, 수리·과학, 과학·기술 등의 집중과정을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핵심교과와 보완 교과의 설정을 통해 각 과정별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과정별 총 이수 과목 및 이수 단위에서 한 두 과목 정도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것이 단위 학교들의 현재 여건상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 선택교과가 79개 이지만 한 학교의 교원수가 이러한 다양한 교과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한 학교에서 선택교과를 제시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과정·과목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능력, 적성, 진로에

맞는 개인별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표 9> 학교당 집중과정 선택인원

집중과정	A		B		E		F		G				D		H		C		계
	인문사회	자연이공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자연이공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수리과학 1	수리과학 2	인문사회	수리과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인문사회	수학과학	
학급	3	3	9	3	5	6			2	2	3	1			4	5	6	2	72
인원	129	88	344	100	169	201			69	70	102	36			137	184	216	82	
학급 평균 학생 수	43	29. 3	38. 2	33. 3	33. 8	33. 5	자료 없음	자료 없음	34. 5	35	34	36	자료 없음	자료 없음	34. 2	36. 8	36	41	35.6

집중교과 중심과정(국어, 외국어, 사회등) 보다는 .대학학부와 연계된 과정(인문, 사회, 이공등)으로 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1개 교과 집중 과정(40단위)을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만들 수 있으며, 대학 입시 등에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집중교과로 엮어지는 집중과정을 설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육 인적 자원부가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도입 취지¹⁵⁾에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능동적·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교육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5) 교육부(1997), [별책4], 고등학교 교육과정 (I), (II)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교육과정 결정 및 교과목 선택권이 국가, 시, 도 교육청, 학교 등에만 한정되어 있던 종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 혹은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생에게도 부여되었다는 점이다.¹⁶⁾ 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차적인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주체가 교육부였던 제5차 교육과정이나 시·도 교육청이었던 제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생’이 일차적인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교과서 중심의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단위학교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여 편성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확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제주시¹⁷⁾의 경우는 학교 크기가 서로 비슷한 중규모 학교가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경기도 40.62, 강원도 43단위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왔다.

<표 10> 선택주체별 이수 단위 현황 (F, D, H고 자료 없음)

교육청 지정	학교지정	학생선택
평균(단위 수)	평균	평균
32.7	68.7	34.7

2. 학교 간 협력 편성 · 운영 방안 설문 결과

본 설문 조사는 2003년 현재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8개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10부내외로 하여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G고	H고	총계
배부	20	20	20	20	20	20	20	20	160
회수	7	12	18	19	17	10	4	13	100

본 설문지는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관한 내용과 예능과정에 관련된 질문,

16) 교육부(2000), 제7차 교육과정 문답으로 알아보기, 교육과정 자료53.

17) 제주도교육청(2002), 제주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

학교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질문, 권역별 예능 특성화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질문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 또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예능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학생들의 과목 선호도’ 51%, 대학입시 제도와의 연계성 27%, 교원 수급 19%, 기타 3%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9%가 ‘현재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과목’에 응답했고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한 선생님도 35%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교육과정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부분 할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부터 예능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69%가 없다. 잘모르겠다 15%, 반면에 15%가 있다.와 많이 있다 1%로 나타났다. 이것은 담임 선생님과 비 담임 선생님의 경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생들의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 예능 과정 개설

예능 과정의 학급 구성은 학교의 현실적 여건이 예능 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공 별로 학급이 구성되더라도 교육 과정 운영상 인적 물적 비용이 다른 과정을 운영할 때보다 증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 전공처럼 기악, 성악, 피아노 등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동일 전공 내에서도 세부 전공별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므로 교육과정 운영상 인적 물적 비용은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 학급 내에 체육, 음악, 미술 전공자가 혼재한다면, 그 소요 비용은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 전공별 희망 인원이 학급 구성이 가능한 정도가 되고 전공 실기지도를 위한 교원 수급이 가능하다면, 단위 학교 차원에서 예체능 학급을 구성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예상된다. 소수 인원이 희망하는 예 체능 과정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므로 단위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능 과정 설치에 개설 과정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인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에서, 학교 규모별로는 대규모 학교에서 보다 더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예능 과정 개설에 대한 응답 결과는 ‘현 여건상 개설 할 수 없다.’에 38%, ‘학급 구성되면 개설 한다’에 37%가 응답하였다. 그 외에 ‘반드시 개설’에 17%, ‘개설 불필요’에 7%, ‘기타’에 1%가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예 체능 과정 개설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7%에 불과하며, 현재의 여건상 개설할 수가 없다는 응답과 학급이 구성되면 개설하겠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이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제주시 교육청 소속 8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능 과정 개설에 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능 과정 개설에 단위 학교에서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 여건상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인적 물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진로와 소질, 적성에 따른 학습을 목표로 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능 과정 개설 학년과 전공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 90%는 ‘개설 학년과 전공 분야는 다르지만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설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학년에서 학급 구성이 가능한 전공 분야를 개설’하겠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부터 학급 구성이 되는 전공분야만 개설’도 38%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예 체능 과정 운영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예능 과정 운영의 문제점

예 체능 과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38명의 교사들이 ‘전공 실기 지도강사 수급’에 응답(38%)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공실기 시설의 확보’에

30(30%)명이, ‘평가의공정성 확보’에 24(24%)명이, 그리고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강할 때 정규과목 이수로 인정’에 6(6%)명이 응답하였다.

예 체능 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은 전공 실기 지도를 위한 강사 수급문제이다. 학교의 교원 정원 제도가 경직되어 있어서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체능 과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전공 실기 지도를 위해서 탄력적인 교원 인가 체제를 갖추는 것은 물론 각 전공별로 세부적이 인적 사항을 포함한 기초자료(DB)가 구축되어 인력 풀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 자원 인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자원 봉사 은행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자동배치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계약제 인력을 발굴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계약제 교원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를 해주고 있다. 30%의 교사들은 전공실기 지도를 위한 전공실기 시설의 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각 학교는 음악실 1개와 미술실 1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 미술 과목 수업을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각 전공별로 여분의 실기실이 최소한 3-4개는 더 확보되어야 한다.¹⁸⁾



미술의 경우, 기초 실기 종목인 소묘지도를 위한 실기실 1개와 조각 전공자를 위한 실기실 1개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음악의 경우 피아노가 설치된 작은 키기의 실기실이 여러 개가 필요하고 각 실기실에는 방음 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2학년과 3학년에 예·체능 과정이 개설된다면 2004년에는 전공 실기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단위 학교는 수업시간표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인원이 희망하는 과정의 수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그 비용에 비해 교육의 효율성이 적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선택중심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충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해야만 제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생의 진로와 소질, 적성에 따른 학습이 실현 가능할 수 있다.

18) 한국 교육개발원(2000), 제 7차 교육과정 운영 대비 정규교원과 계약제 교원의 합리적 배치 및 직무 기준 설정 방안 p208

다. 예 체능 과정 운영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

예 체능 과정 개설은 투입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학교와 학교, 교육청과 학교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수급에 있어서 교육 당국의 지원 방안에 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예능지도 교사의 학교간 협력 지도’에 37(37%)명이, ‘단위 학교별 교원의 탄력적 운영’에 37(37%)명이, ‘교육청 소속 교사의 확보’에 22(22%)명이, ‘강사료 지원’에 4(4%)명이 응답하였다.

이처럼 실기 지도를 위한 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해결 인식은 예능지도교사의 학교 간 협력지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학교 간 협력지도 라는 것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순회교사제를 단순히 교사들의 적정 단위수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선생님이 필요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순회교사를 확보하여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 간 협력 지도나 교원 정원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복잡한 과정 없이 예 체능 과정의 운영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예 체능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교간 협력에 의한 편성·운영 방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만들어 갈 때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학교간 협력 편성·운영을 한다면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단위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관해 실증적인 사례나 연구는 부족했다. 여기서의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은 단순히 인접해 있는 학교 간에 협력 지도가 아니라 학교 간 예능과정 개설에 관한 총체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학교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합기구’가 38%, ‘예능과정을 운영하는 주관학교’35% 교육청이 2%, 기타 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학교 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많은 공론이 필요하며 연합기구 결성의 당위를 제공한다고 본다. 예능과정을 운영하는 주관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은 학교 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 편성·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능과정 교원 수급 문제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연합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에 관해서는 지도의 실효성 및 평가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특정학교에서의 교육 평가를 예능과정의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학교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 구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사의 수급문제가 37%, 더불어 지도의 실효성 및 평가문제가 34%를 차지했다. 지도의 실효성 및 평가 문제는 학교 간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추가되는 문제이므로 학교 간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시에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평가의 문제는 각 학교 선생님이 전부 평가하는 부분과 외부에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생활지도상의 문제 25%, 시설의 문제 4%가 있었다.

예 체능 과정 전공과목의 적정 이수 단위 수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10단위 이하’에 40(40%)명이 반응하여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1-20단위’에 27(27%)명이, ‘21-30단위’에 16(16%)명이, ‘31-40단위’에 8(8%)명이 ‘41단위 이상’에 7(7%)명, ‘기타’ 2명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예 체능 과정을 어느 학년에서 개설하느냐에 따라 전공 실기 이수 단위는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설문에 따라 예 체능 과정을 3학년에서 개설하고 10단위 이하로 과정을 운영하며 실기지도와 시설의 지원만 있다면 지금 현재 조건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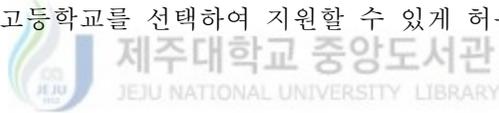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등학교를 권역별로 특성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학교 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의 편성·운영에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등학교의 예능과정 특성화는 한 지역에서 여러 개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별, 학군별, 권역별 예능 특성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정해져야 한다.

권역별(제주시) 예능 특성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39(39%)명이 ‘개별 학교의 대표성이 있는 연합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결정’을 20명(20%)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결정’, 21명(21%)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 ‘교육청지정’에 17(17%)명, 학생 자치회에서 결정이 3명(3%)으로 나타났다. 특성화는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는 할 때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예능 특성화 학교가 지정된 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들 가운데 예능과정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예능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60명(60%), ‘매우 긍정적이다’ 24명(24%), ‘부정적이다’ 12명(12%), ‘매우 부정적이다’ 2명(2%), 기타 2명(2%)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권역별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이 학교의 우열화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84%). 이것은 권역별 특성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학교의 우열화나, 평준화 정책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어도 제주시 지역 만큼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능 집중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악, 미술 교과 영역에서 권역별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 지역에 몇 개의 음악특성화 고교, 미술특성화고교를 만들고 음악이나 미술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간 협력 편성 · 운영 방안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간 협력 편성 · 운영 방안을 구상하기 앞서 먼저 권역별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 학교를 정하여 학교 간 협력 편성 ·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예능 과정의 구성은 학교의 현실적 여건이 예능 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예능과정은 전공 별로 교육 과정 운영상 인적 물적 비용이 다른 과정을 운영할 때보다 증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 전공처럼 기악, 성악, 피아노 등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동일 전공 내에서도 세부 전공별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므로 교육과정 운영상 인적 물적 비용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더욱이 하나의 학교 내에 음악, 미술 과정이 혼재한다면, 그 소요 비용은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과도기적인 학교간

협력 편성·운영에 따른 음악과정이므로 11학년에서는 인문·사회과정으로 12학년에 음악과정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의 학교에 12학년 음악 과정만을 대상으로 학교간 협력에 의한 편성·운영 방안을 단위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하였다.

가. 학교 실태

B여자고등학교는 제주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평준화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학교 역사는 25년 정도 되었고(1979년 개교) 지역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지역 학부모의 학교 선정에 대한 관심과 자녀들의 진학 지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도 높은 편이다.

1) 교직원 현황

B여고의 전체 교직원 수는 총 86명이며, 이 가운데 관리직(교장 1명, 교감 1명)과 일반 행정직이 12명이고, 나머지 74명이 교원이다. 전체적으로 교직원 구성은 남녀의 비율은 남자 선생님이 여선생님보다 많게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별 교사 배정도 잘 되어 있으며, 제 7차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임시직 교사의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교직원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2>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사무부 장	일반직	기능직	기타	소계	총계
			남	여							
현원	1	1	48	26	74	1	3	5	3	12	86

2) 시설 현황

B여고의 학교 시설은 보통 교실, 특별 교실, 체육관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특히, 일반 교실은 총 학급 수와 같으며 특별 교실 및 기타 부대 시설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어 전

체적으로 학교 시설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 40여대의 디지털 피아노를 갖추고 있고 음악실 역시 다목적실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연습실만이 확보된다면 음악과정을 운영하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시설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3> 시설 현황

총부지	체육관	보통교실	관리실	어학실	멀티실	방송실	ICT 교육실
20,104㎡	1	35	7	2	1	1	2
다목적실	음악실	국악관현 악실	컴퓨터실	도서열람 실	상담실	미술실	독서실
1	1	1	3	3	1	2	3
과학실	보건실	학생회실	학부모실	휴게실	화장실	급식소	창고
4	1	1	1	2	22	1	1



3) 학생 현황

B여고는 1학년 12학급, 2학년 12학급, 3학년 12학급이며, 총 3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학생수가 1257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9명이다. 1학년은 공통 과정이고 현재 2학년은 인문·사회 과정 9학급과 과학·기술 과정 3학급이며, 3학년은 인문·사회 과정 9학급과 자연 과정 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학생 현황은 다음 과 같다.

<표 14>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소계	인문 사회	자연	소계	
학급수	12	9	3	12	9	2	11	35
학생수	427	344	100	444	312	75	386	1257

4) 교원 수급 고려 방법

- (1) 현재의 교사 인원(80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 (2) 교과목별 교사 수는 다음 <표 V 14>과 같다.

<표 15> 교과목별 교사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기술 가정	체육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역사	지리	사회			
인원(명)	11	13	11	2	3	3	3	4	3	4	2	3	
과목	음악	미술	도덕	일어				중어				정보·컴퓨터	계
인원(명)	2	2	1	1				1				1	70

(3)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등 각 교과목의 교사수급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5) 음악 과정을 운영한다면 음악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인근 중학교(걸어서 15분 이내의 2개교가 있음), 중학교의 교사를 실기 교사로 확보하는 방안과 지도강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5) 2005년 대학입시체제와의 관계

- (1) 2005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계열 구분이 없어지므로 계열 선택에 따른 상대적 불리로 인한 문제들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수리 영역에서는 수리 ‘가’형이나 과학탐구 영역 등 학습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부 과의 응시자 수 감소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2) 수능 시험의 탐구영역 반영에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하나의 영역만 택하여 응시 가능하다.
- (3) 사회탐구 영역 4과목 이내, 과학탐구 영역 4과목 이내, 직업탐구 영역 3과목 이내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 (4) 인문·사회의 경우 사회 탐구 영역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사회 문화, 정

치, 한국 근 현대사, 윤리, 한국지리를 선택하여 수능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12학년에 집중적으로 설치 되었다.

(5) 과학·기술의 경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설정하여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경향이 많아, 12학년에 집중 이수 과목으로 선택 하였다.

(6) 특정 대학들의 경우 최소 이수단위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대학에 문의한 결과 최소이수단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일반 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경우 최소 이수단위에 따른 제약은 매우 적을 것이다.

나. 학교 간 예능과정 편성·운영

단위별 학교가 제7차 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올해 처음 적용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음악과정을 따로 개설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앞서 거론한 B여고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각 학교의 편제를 살펴보고 12학년에 음악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우선 단위수를 확보하고자한다. 음악과정의 개설에 있어서 단위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각 학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인문·사회 과정과 그 외의 과정의 편성·운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표 15, 16>

개별 학교의 인문 사회과정을 비교한 결과 D, E, F, G 고등학교는 과학·기술 시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8단위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교과로 음악과생활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단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1,12학년의 단위 수 배정 문제를 생각할 때 음악과정의 8단위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A, B, C의 학교의 경우 보완교과(수학·과학·기술)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최소 이수단위를 만족하기 위해 26단위를 운영한다. 하지만 A, C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 있어서 핵심교과의 적정 단위수를 4-6단위 이상 초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G학교의 도덕·사회 심화 선택과목이 4-5과목인데 비하며 A, C학교는 6-7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 학교 역시 음악과 생활이 개설 되어 있기 때문에 8단위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수를 검토하는데 있어 결국 대학 입시 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인문·사회 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12학년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이수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한 학교도 많이 발견되었다. 수학능력시

험에서 인문·사회과정에 학생들은 사회 탐구영역만을 선택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12학년에 과학·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예상된다.

<표 16> 학교별 인문 사회과정 비교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G1	G2	H
핵심 교과	국어	26	28	24	24	24	22	22	22	자료 부족
	도덕	4	4	10	8	4	4	4	4	
	사회	30	26	32	28	30	32	26	20	
계		60	58	66	60	58	58	52	46	
보완 교과	수학	14	14	14	14	14	14	14	14	
	과학	8	8	8	16	16	16	16	16	
	기술 가정	4	4	4	6	4	4	10	4	
계		26	26	26	36	34	34	40	34	
기타 교과	체육	4	4	4	4	4	4	4	4	
	음악	4	4	(1학년 재량 교과 통합4)	택일4	4	.	4	4	
	미술	4	4			.	4	.	.	
	외국어	22	24			24	22	20	22	
	제2외국어	8	8	8	6	8	6	4	4	
	한문	4	4	4	4(한문·교련중 택일)	4	4	6	6	
	교양	심리학 4	생활경제4	생태와 환경4	1학년 재량 (진로와 직업4)	논리학4	생태와 환경4	논리학 6	논리학 6	
계		136	136	136	136	136	136	136		

<표17> 학교별 인문사회를 제외한 과정비교

		A	B	C	D	E	F	G1	G2	H
핵심교과	수학	26	24	28	26	28	24	26	26	자료부족
	과학	28	28	24	28	28	28	32	32	
	기술 가정	4	4	4	6	4	6	4	4	
	계	58	56	56	60	60	58	62	62	
보완교과	국어	22	18	24	24	20	22	18	18	
	도덕							4	4	
	사회	10	10	12	12	12	12	12	12	
계	33	28	36	36	32	32	34	34		
기타교과	체육	4	4	4	4	4	4	6(4)	6(4)	
	음악		4	(재량 1학년)	4	4				
	미술	4	4				4			
	외국어	22	24	24	22	20	22	20	20	
	제2외국어	8	8	8	6	8	6	4	4	
	한문	4	4	4	4	4	4	6	6	
	교양	심리학4	생태와 환경4	4	(재량1 학년)	논리학4	생태환 경4	논리학 6	논리학 6	
계		136	136	136	136	136		136	136	

음악과정을 만들고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을 할 때에 음악과정이 없는 학교에서 음악과정이 있는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고자 한다면 공통된 시간을 할애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단위학교에서의 어느 정도 원칙이 적용되

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문·사회 과정에서 12학년에 도덕·사회 심화 선택과목을 과학·기술 심화 선택과목보다 많이 개설해야 하는 것과 음악 과정에 있어서 음악실기 시간이 포함되는 인문사회 과정에서의 다른 교과과목들이 특정요일에 집중적으로 편성·운영 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¹⁹⁾

이러한 원칙들이 학교 간 협력에 의해 정해진다면, 또한 교육청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원수급을 치밀하게 계획한다면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19) 강원도 교육 과학 연구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1998), 제 7차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학교 중심, 학습자 중심-,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단위 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선택 과정 혹은 과목을 개설해야한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 설치에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학교 현장의 여건에 따라 그 가능성은 증감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소수 학생들이 선택한 과정 특히, 예·체능 과정의 개설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이해와 편성·운영의 기본 방안을 논하였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이전의 30년간 지속된 문·이과식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탈피 하고 21세기 사회변화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7차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편성·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전제 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 교과 집중학습과 교육적 선택의 내실화 등 이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다 교과 피상학습체제였다. 한 학년에 평균 15과목을 이수해야하며 몇 단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있어 걸림 돌이 되어 왔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소 교과 집중학습을 피하여 이러한 부조리함을 바꾸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 목, 과정을 다양화하였다. 학습자의 선택에 있어서는 교육적 선택의 내실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학습자 자신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운영상에 집중과정으로 반영 되었다. 집중과정은 10개의 집중교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집중과정을 개설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정을 모두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따른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수 학생들이 선택한 과정, 특히 예체능 과정을 편성·운영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이 연구되었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효과적인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프로그램의 특성화라는 것은 개별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것으로서 대학의 전문성 높은 교수에 의해 강좌가 개설되듯이, 교사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며 제시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의 특수한 필요에 의해 학교 나름의 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에 주어진 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이나 코스, 프로그램을 개발 개설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예체능 과정의 개설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예체능 과정의 특성화가 각 학교마다 모두 개설될 수는 없다. 그것은 과정의 특성상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뒤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더불어 특정 지역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몇 개의 학교를 선택하여 음악, 미술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 필요한 과목들을 다른 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해 주는 권역별(학군별) 예능 특성화 체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때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장에서는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설문지를 통해 보완하여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이 11학년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예체능 과정 중에 음악과정을 따로 분리하여 설문의 결과에 따라 3학년 과정에 10단위 이하로 적용하여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을 구안하였다.

지금의 제7차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진통은 더욱 엄청나리라 생각된다. 물론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이행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전의 문·이과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약간의 과목 선택을 가미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을 위한 실행 방안이 되기에는 매우 실망을 안겨 주는 처방이 될 것이다. 과거의 교육과정대로 안주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의 이반 현

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²⁰⁾

선택중심교육과정이 교육청의 활발한 역할, 학교 간에 협력에 의한 역할 분담 등이 유기적으로 일어난다면 학생들의 희망과 요구, 소질과 적성, 진로와 능력에 바탕한 7차 교육과정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결론

선택중심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필요와 관심, 진로 및 여건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이 다양화, 특성화되지 못한다면 학습자들의 선택의 폭은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이전의 지배적이었던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습자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구현은 한 낮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하며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에 보다 합당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학교 간 협력을 통한 편성·운영은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종류와 수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과목, 과정 선택 희망자가 적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예체능 과정 개설을 도모할 수 있고 과정의 다양화도 꾀할 수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교육 수요자 중심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을 제시한 것은 아주 미비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 학교 간 협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체제가 아니었고 학교 간 협력에 의한 편성 방안의 전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의한 특성화 방안 또한 특성화에 대한 인식의 오해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김재춘 외(2001),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방안 연구.

이러한 이유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에 관한 다양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선택교육과정의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 방안의 모형을 제시해 보고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계획서 및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방안의 설문지를 통해 실제로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능과정의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역별 학교 간 협력에 의한 고등학교의 특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학교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예체능 과정에 특성화에 있어서 권역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고교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체능 중심의 고등학교 특성화 정책은 결코 중학교를 입시경쟁의 장으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달리 말하면, 평등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예술계 고등학교도 없을뿐더러 현재(2003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교육과정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내용 중 학습자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고자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시 지역에 몇 개의 음악특성화 고교, 미술특성화고교 등을 만들고, 학교 간 협력 편성·운영을 통해 음악이나 미술 등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역별 특성화방안을 상정 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인 권역별(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예능과정을 선택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원도 교육 과학 연구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1998), 제 7차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학교 중심, 학습자 중심-,
공주고등학교(198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연구.
곽병선 외, 한국교육개발원(1996), 교육과정2000연구 개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
교육부(1997), [별책4], 고등학교 교육과정 (I), (II)
교육부(1997),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9), 음악
교육부 (2000),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자료, 교육과정 자료 29.
교육부(2000), 제7차 교육과정 문답으로 알아보기, 교육과정 자료53.
- 김세진(2000),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연구-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춘 외(2001),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방안 연구.
남녕고등학교(2003), 학교교육계획서.
대기고등학교(2003), 경영계획서.
도계고등학교(1999), 제7차 일반계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개발.
문경협 (2001), 사회과 선택 중심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 박도순, 홍후조(1998), 교육과정과 교육 평가, 문음사.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2000), 제7차 과학·체육·외국어·예술·국제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2000), 제7차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심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실천 사례집.
서심미(2000), 현행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연구
-영남지역의 예술고등학교 중심으로 -, 경성대학교 대학원

- 송영대(2000),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재고등학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험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 (1997)
- 열린교육학회,(2000), 제8집 제1호 2000,5
- 오현고등학교, 학교 교육계획서(2003).
- 이돈희(1997),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2003), 학교 교육계획서.
- 제주도교육청(2002), 제주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제주여자고등학교, 학교 교육계획서(2003).
- 제주제일고등학교(200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 조난심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cr97-33,
- 중앙여자고등학교(2003), 학교 교육계획서.
- 충북 영동고(1988),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재량활동 교육과정편성과 운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 충청남도교육연구원(1998), 제 126호 충남교육 1988,1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홍후조 외(1999),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
과정 평가원.

예능과정 학교 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음악교육전공)에 재학중인 고은석입니다.

선생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듯 제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집중과정편성, 교사수급, 시설 등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한 후속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으로 제시한 특성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기저가 흔들릴 염려 등의 문제점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으로 제시한 학교 간 통합 편성·운영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비교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현재 우리나라 몇몇 학교들 간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2003년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 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의 편성·운영방안에 대하여, 설치·운영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석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고견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3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고 은 석

I. 귀교와 선생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하거나 써 주십시오.

1. 학교 규모 : 1) 15-25 학급 2) 26-39 학급 3) 40학급 이상
2. 교원 수 : 1) 50명 이하 2) 51-75명 3) 76명 -99명 5) 100명 이상
3. 성별 : 1) 남 2) 여
4. 경력 : 1) 10년 이하 2) 11년- 20년 20년 이상
5. 담당교과 : 1) 국어 2) 도덕 3) 사회 4) 수학 5) 과학 6) 기술
 7) 가정 8) 체육 9) 음악 10) 미술 11) 영어 12) 한문
 13) 역사 14) 제2외국어 15) 교련 16) 교양선택 17) 기타_____

II.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하거나 써 주십시오.

1.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 학생들의 과목 선호도
 2) 교원 수급
 3) 대학입시 제도와의 연계성
 4) 기타_____
2. 학생들로부터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예능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많이 있다.
 2) 있다
 3) 없다.
 4) 잘 모르겠다.

3.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
-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이 깊은 과목
- 3) 현재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과목
- 4) 공부하기 쉬운 과목
- 5)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
- 6) 기타_____

III. 예능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예능과정 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개설할 필요가 없다.
- 2) 개설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여건상 개설할 수가 없다.
- 3) 학급 구성이 되면 개설해야 한다.
- 4)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 5) 기타_____

2. 만일 예능과정을 개설한다면 귀교에서는 어느 학년부터 어떤 전공 분야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학년부터 음악, 미술 개설
- 2) 2학년부터 학급구성이 되는 전공분야만 개설
- 3) 3학년부터 음악, 미술 개설
- 4) 3학년부터 학급구성이 되는 전공 분야만 개설
- 5) 전혀 개설하지 않는다.
- 6) 기타_____

3. 예능과정 개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평가의 공정성 확보
- 2) 전공실기 시설의 확보
- 3) 전공실기 지도강사 수급
- 4)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강할 때 정규과목 이수로 인정
- 5) 기타 _____

4. 예능과정의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당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단위학교별 교원의 탄력적인 운영
- 2) 예능 지도교사의 학교간 협력지도
- 3) 예능 지도강사의 강사료 지원
- 4) 교육청 소속 예능 지도강사를 확보하여 순회지도
- 5) 기타 _____



IV. 학교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학교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능과정을 운영하는 주관학교
- 2)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합 기구
- 3) 교육청
- 4) 기타 _____

2. 학교간 협력에 의해 예능과정을 구성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생활 지도상의 문제
- 2) 예능(전공과목) 교과의 교사의 수급 문제

- 3) 지도의 실효성 및 평가문제
- 4) 시설에 대한 문제
- 5) 기타_____

3. 학교 간 협력에 의한 예능과정을 운영한다면 예능과정의 총 단위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0단위 이하
- 2)11-20단위
- 3)21-30단위
- 4)31-40단위
- 5)41단위이상

V. 권역별(제주시 지역) 예능 특성화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권역별 예능 특성화란 특정 지역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몇 개의 학교를 선택하여 음악, 미술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 필요한 과목들을 다른 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해 주는 학교 체제를 뜻합니다.



1. 권역별(제주시 지역) 예능 특성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 자치회에서 결정
- 2) 교육청에서 지정,
- 3) 학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
- 4)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결정
- 5) 개별 학교의 대표성이 있는 연합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결정
- 6) 기타

2. 예능 특성화 학교가 지정된 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들 가운데 예능과정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예능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현행 교육 평준화 정책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1) 매우 긍정적이다.
- 2) 긍정적이다.
- 3) 부정적이다.
- 4) 매우 부정적이다.
- 5) 기타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Elective Curricula, Interschool Curriculum
Compilation and Management

: the case of regular high schools in the city of Jeju

Ko, Eun-Suk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 J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how elective curricula should be fulfilled to benefit a small number of students choosing art or music courses in regular high school in the city of Jeju and how different schools could join forces in organizing and implementing elective curricula.

For that purpose, it's attempted to look into music curriculum, domestic books on music curriculum, research papers and articles and to make a content analysis of elective curricula for regular high school. Specifically, in which way the 7th national curricula wer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eight regular high schools in the city of Jeju in 2003 was examin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explore how interschool collaborative curricula could be created, based on the relevant guidelines presented by Korea Curriculum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suppliers should stick to what the 7th national elective curricula pursue. The current high school curricula call for a lot of changes, which are expected to entail huge pain as they intend to transform the past ones that had continued to exist for about three decades. The only way to avoid such a pain is to hold fast to the past practices and add just some elective courses, but this will result in disappointing students and getting them to turn their backs to school education. The 7th national curricula, which paid attention to the needs, ability and aptitude of students, will be taken into another level only when the intent of the elective curricula is actualized.

Second, in order to boost interschool collaboration, specialty education programs must be built, above all, by different schools. A specialty program means what's developed by teachers in each school. As university classes are offered by highly expert professors, teachers should have a full-fledged expertise to develop specialty programs. Although the national curricula exist, school teachers should be able to offer unique courses or reorganize existing ones in response to student needs or school need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specific classes or programs by

teachers could provide wider choices to studen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ganiz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school collaborative curricula.

Third, it's needed to create regional specialty programs for art and music, which are difficult for individual school to offer. This type of program could be very effective for those classes, as each school finds it hard to deal with them independently. But it's not quite possible for every school to offer this type of programs for both music and art, since there are lots of difficulties due to the inherent nature of those courses. It's advisable to choose some regular high schools from a particular region and assist each of them to offer more classes for one of art and music. And among would-be high school students, those who apply for art or music should be allowed to be admitted to specialty schools.

